

자유화에 나타난 뇌성마비아의 정서적 특징

정재권*

우석대학교

이혜숙

명신대학교

정미영

대구대학교 재활과학과 박사과정

《요약》

이 연구는 뇌성마비아의 자유화에 나타난 뇌성마비아의 정서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4개 지체부자유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뇌성마비아 44명의 자유화를 통해 정서적 특징을 자신감/안정성, 불안증/우울증, 공격성/충동성, 위축증/의존성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뇌성마비아 성별 정서적 특징에서 남학생은 공격성/충동성의 경향이 나타났고, 여학생은 자신감/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뇌성마비아 장애정도별에서 1급은 공격성/충동성, 2급은 공격성/충동성, 3급은 자신감/안정성이 가장 높음으로 장애가 중증일수록 공격성/충동성이 많다.

셋째, 뇌성마비아 장애유형별에서 경련형은 자신감/안정성이 되어 있는데 비해 비경련형은 공격성/충동성이 많다.

주제어 : 뇌성마비, 자유화, 정서

I. 서론

1. 연구의 의의

그림은 아동의 미술적 표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세계의 투사이므로 그들의 심리적 특징을 연구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김재은(1995)은 그림속의 표현양식과 아동의 심리적 특징간의 관계에 대해서 첫째, 그림은 언어의 표징(표징)이다. 둘째, 그림은 아동이 획득한 개념과 생활경험을 표현한 것이다. 셋째, 그림은 자아상의 표현이다. 넷

* 교신저자(cjk5207@woosuk.ac.kr)

째, 그림은 창조적 사고의 표현이다. 다섯째, 그림은 아동 욕구의 표현이다. 여섯째, 그림은 환경에 대한 인간 태도의 표현이다. 일곱째, 그림은 성격특징의 투사이다. 여덟째, 그림은 의식적 세계의 투사이다. 아홉째, 그림은 정신·신체의 심리적 징후의 표현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투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그림을 관찰할 때 그들 자신의 독특한 선, 색, 형태, 공간 등의 독자적인 표현양식을 통해 개인적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 아동이 그림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듯이 뇌성마비아동도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밖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흥미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된다.

뇌성마비아는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 및 자세의 비진행성 장애이다. 다양한 운동결함은 출생시 혹은 출생 직후에 나타난다. 그 원인은 유전이나 모체 감염에서부터 출산시 외상이나 출산후 뇌와 관련된 질환 등 매우 다양하다. 주요 증상은 근육의 문제, 과도한 무정위 운동, 자세의 불균형, 경련 등으로 병변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 아주 가벼운 운동 부조화에서부터 심한 장애에 이르기 까지 그 범위가 넓다(Batshaw & Perret, 1986). 이와 같은 운동장애는 기본적인 욕구충족이 되지 않아 욕구저지의 상태가 지속되어 욕구 불만이 쌓이게 되고, 자신의 신체적인 작용이 형제나 다른 아동과 다를 것을 인식하게 되어 자신감의 결여, 불안정감을 만들어 부적응 행동으로 진전되는 경우가 많다(곽승철 외, 1999).

미술은 놀이와 마찬가지로 아동에게는 흥미있는 분야이다. 아동들의 그림은 성장과정에서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적발달과 정서적 발달, 인격형성에 교육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한기정(2002)은 미술활동이 아동 개인의 능력에 맞도록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 줄 때 그들의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성장을 촉진시키며, 모든 아동에게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창의적 욕구에 만족을 주며 아동들의 지적, 신체적 발달을 도울 뿐 아니라 미술에서 얻은 성공의 경험은 그들의 자신감을 키운다고 하였다.

아동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미술은 재활치료의 한 방법으로 뇌성마비아들에게 신체와 심리적 반응을 이끌어 내어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뇌성마비아의 치료는 의학적 측면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까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길성숙, 2002).

이와 같이 투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화는 그림을 그리는 아동의 내적 욕구, 흥미, 갈등, 성격 등이 반영된 그 아동의 무의식 세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아동의 정신적 내면세계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뇌성마비아동이 그린 자유화를 통하여 자신감/안정성, 불안증/우울증, 공격성/충동성, 위축증/의존성 등으로 분석하고 그림의 전체적인 인상을 분석하여 정서적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 첫째, 뇌성마비아 성별에 따른 정서적 특징을 알아본다.
- 둘째, 뇌성마비아 장애정도별에 따른 정서적 특징을 알아본다.
- 셋째, 뇌성마비아 장애유형별에 따른 정서적 특징을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화의 발달과 심리적 특성

아동화는 아동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아동은 아직 모든 행동에 있어서 미분화된 상태에 있다. 즉 자신과 타인, 놀이와 일, 거짓과 진실, 현실과 꿈 등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없으며, 솔직하고 순수하다. 그래서 정대식(1995)은 아동화는 아동의 정신 세계의 투사이며, 생활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했다. 아동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상을 사실 그대로 그리지 않고 알고 있는 것, 흥미로운 것을 주관대로 전달하고 표현하며 나란히 늘어놓고자 한다.

그림은 아동의 정신 발달이나 상태에 따라 다르며, 연령, 성별, 성격, 아동이 획득한 개념과 생활환경 등에 따라 다른 야상을 보인다. 아동은 그들 나름의 세계가 따로 있어서 외부에서 주어진 사물에 대한 인상을 자기대로 구상하여 그림을 그리는데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그려놓은 그림이나 낙서 등 여러 조형 활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의 지능 및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성장 발달과 심리 상태를 엿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동의 심리의 미발달 상태를 알기 위하여 아동의 그림에 표현된 형태분석 연구가 부각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은주, 2004).

아동화의 발달단계를 보면 Lowenfeld(1975)는 난화기(2-4세), 전도식기(4-7세), 도식기(7-9세), 여명기(9-11세), 의사실기(11-13세), 사춘기(13-17) 등 여섯 시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Read(1945)는 낙서기(2-5세), 선묘시대(4세), 서술적 상징기(5-6세), 묘사적 사실기(7-8세), 시각적 사실기(9-10세), 역제의 시기(11-14세), 예술적 부활기(15세) 등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고, Kellogg(1970)는 그림의 기본 형태 단계(2세 전후), 단순 도형단계(2-3세 전후), 디자인 단계(3-4세 전후), 초기 그림단계(4세 이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Lowenfeld(1975)가 제시하고 있는 발달단계를 보면 난화기는 미분화 상태로 그리는 단계로 무의식적인 표현이며 손의 근육운동에 흥미를 느끼거나 종이위에 나타나는 선에 흥미를 느껴서 그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표현적 또는 장식적 목

적을 가지지 않은 자유로운 선의 표현으로 형체와 색채를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연필이나 크레파스로 팔의 운동에 따라 상하좌우 또는 동그랗게 움직여 그어대는 것을 즐기며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의식적으로 그어댄 선을 통해서 표현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 단계에서는 그어놓은 것에 무턱대고 이름을 붙이려고 하고, 자기가 그어놓은 것이 어떠한 형체로 보이든지 상관없이 그때그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의 내용과 관련 지워서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이정환(1996)은 이 시기의 아이에게 사과나 인물을 그리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도식기는 난화기의 무의식적인 표현과정으로 처음으로 의식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시기로 감정적인 본능의 욕구로써 아동들은 그리고 싶다는 의욕만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연필이나 그 밖의 재료를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형상의 그림은 그려내지 못한다. 윤성자(1985)는 이 시기에는 자기가 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한다고 한다. 소재는 주로 사람을 많이 그리며 대개 머리는 원으로 팔과 다리는 긴 선으로 그린다. 공간적인 표현에서는 질서가 없고 색을 구분할 줄 알며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색을 선택해서 그린다.

도식기에는 성인들도 일을 할 때 반복적으로 하듯이 아동들도 여러 번 반응을 해 본 결과 표준적이고 정형적으로 된 것, 사람은 이렇게, 꽃은 이렇게 라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개념이 생겨서 도식적인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동들은 각자의 체질이나 개성에 따라 다양각색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그림의 형태나 내용들은 아동의 경험과 가치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공간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기저선(base line)이 등장하게 된다. 즉 기저선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아동이 사물을 서로 연관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어떤 일에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식화되었던 선묘법에서부터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시대로 접어든다고 말한다.

여명기는 아동이 사회적 독립에 눈을 뜨고 혼자 보다는 무리를 지어 놀기를 좋아하고 아동들끼리의 암호나 은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어른의 욕구와 때때로 부딪치게 된다. 시간개념의 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과장표현이나 생략 등을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인정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아동이 10세가 지나면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정서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세밀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뀐다.

의사실기에서는 지각의 발달로 논리적으로 성숙해 가는 시기이므로 논리의 시기라고 하며 모든 묘사의 운동감이 많아지며 삼차원적 표현이 가능해 진다(문형준, 1996). 아동들은 각자의 지성에 눈을 뜨게 되지만 아직도 아동다운 놀이를 하면서 논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시각형과 비시각형으로 구분되는데 시각형은 공간을 원근법적으로 나타내는데 관심을 가지며 또 대기상태에 나타난 색채, 빛, 그림자 등의 변화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비시각형은 자신과 의미와의 정서적인 관계를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시각형의 아동

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경꾼의 기분으로 작품을 밖에서 보게되고, 비시각형은 자기작품에 마음을 쏟기 때문에 내용 위주의 그림을 표현하게 된다.

사춘기는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창조적인 작품에도 능히 비판적인 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소질이나 적성에 따라서 개개인의 능력이 명백하게 개성과 적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개성으로 성장하기 위해 진로를 서서히 결정할 수 있는 시초가 되는 시기이다.

색채와 감정에 있어서 감정은 눈, 코, 입, 귀, 혀, 살갓 등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 선악, 좋고 나쁨, 변화 등을 알아내는 정신능력을 말한다(김재은, 1995). 색채의 심리작용은 색의 3요소(색상, 명도, 채도)에 따라 결정된다. 난색 계통의 밝고 선명한 색은 활기와 적극성을 느끼게 하고, 한색계통이나 중성계통의 둔하고 어두운 색은 정적이며 기분은 부드럽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소극적인 기분도 일으킨다. 그래서 색채의 작용은 우리 생활에서 감정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이며 또한 행동을 좌우하는 큰 요소이다(김형아, 2001).

김춘일(1981)은 그림에서 형태는 내용을 이루어 가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림을 그릴 때 형태를 창조하는 것은 자신의 중심으로 주어진 재료로 나타내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며, 자신의 재능과 상상력에 의존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림의 형태는 자신의 내적 경험과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조형언어로 표현된다. 아동화의 형태가 중요한 것은 발달단계마다 형태의 차이가 나타나고 아동의 성격과 심리를 분석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림의 형태는 아동의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심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읽을 수 있다. 예컨대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아동의 그림은 자신이 그리고자하는 그림의 형태를 분명하게 그리며, 색채도 밝고 화려하며 선명하다. 반면에 가정이 불안하여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정서적으로 불안 상태에 있는 아동의 그림은 형태가 불분명하고 산만하며, 자신의 욕구 불만을 그대로 그림에 표현하게 된다(조혜영, 2003).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아동화에 있어서 발달단계는 매우 중요시 되며, 아동의 발달단계와 그림 발달단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달연령에 따라 변해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동화의 발달에 나타난 특징을 가지고 인간의 심리적 여러 발달단계를 관찰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 특징을 더듬어 그들이 나타낸 바를 그림의 표현내용, 방법 등과 관련 지워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뇌성마비아의 심리적 특성

뇌성마비는 단일 질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발육도상 뇌에 더해진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생긴다. 신경학적 질환의 복합체로 증후군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중심이 되는 중추성 운동장애 외에 다양한 수반 장애를 동반하는 것이 많고 그 임상적인 증상

은 매우 복잡하다(정재권·안병준, 2001). 그 원인은 유전이나 모체 감염에서부터 출산 시 외상이나 뇌출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주요 증상은 근육 결함 혹은 과도한 불수의 운동, 자세불균형, 경련 등이다. 장애의 징후는 주요 병변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 아주 경미한 운동 장애에서 중증 장애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Batshaw & Perret, 1986).

대체로 정상발달을 하는 아동의 경우 자신들이 가족들로부터 수용되고, 존중되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쉽다. 하지만 뇌성마비로 인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원만한 사회·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한다(Tanner, 1980). 그리고 뇌성마비아는 운동장애에 따른 행동이나 동작의 부자유와 언어장애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아동과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로 인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저지되기 쉽다. 이로 인하여 사회로부터의 도피나 자신의 욕구를 무의식 속으로 억압해버리거나 대상행동, 퇴행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곽승철 외, 1999).

뇌성마비아의 심리적 특성은 다양한데 Hallahan 과 Kauffman(1982)은 신체적 한계에 어떻게 적응 하느냐와 그들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으며 부모, 형제자매, 교사 또래집단 등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많은 뇌성마비아들은 정서의 표현을 위해 신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화가 나거나 맘에 들지 않을 때 그 자리를 벗어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정서의 구어적인 표현과 신체언어가 저해되어 성인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강수균 외9인). 따라서 뇌성마비아는 정서 불안정, 비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가정환경에서의 부적응, 기타 문제 행동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이러한 관점은 재활훈련의 지도 과제를 심리적 문제, 신체적 문제, 기타 문제로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루어 학교교육 활동 전체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지도하여야 한다(교육부, 1995). 7차 특수학교 치료교육활동 교육과정(1996)에 제시한 심리·행동 적응 훈련의 목표는 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와 그로 인해 표출될 수 있는 여러 행동상의 문제점들을 장애극복의지, 개인적 부적응 행동의 교정, 사회적 부적응 행동의 교정 및 사회성 기술의 훈련 등을 통하여 바람직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협동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1999).

많은 뇌성마비아들이 나타내는 사회·정서적인 어려움은 그들의 적응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뇌성마비아는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없거나 스스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즉 일반학생은 장벽에 직면했을 때 본래의 목표에 가까운 대상적 만족을 발달시켜 가는데 비해 뇌성마비 아동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안병준(1978)은 신체적인 장애, 기관열등감, 욕구불만, 신체상 등의 관점에서 성격에 많은 왜곡을 가져오게 되며, 이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은 첫째, 신체적 행동의 불일치, 둘째, 신체의 자세나 보행, 셋째, 환경의 호기심이나 냉안시,

넷째, 부모 형제의 과보호나 거부, 다섯째, 수술이나 마사지등의 의료에서의 공포감, 여섯째, 지능, 언어, 감각상의 결함 등을 들고 있다. Hourcade와 Parette(1984)는 정서적인 문제를 연구한 논문들의 분석을 통해 정서적인 문제의 원인을 첫째, 중추신경계의 병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 둘째, 운동장애와 관련된 문제, 셋째, 부모와 아동의 왜곡된 관계를 들고 있다. 이러한 지체부자유아 부적응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1995)는 기본적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동작에 문제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식사, 용변, 의복 및 보장구의 착용, 이동 등의 제반 동작의 습득 및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또는 놀이에 대한 흥미, 관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림을 통한 뇌성마비아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한 몇 편의 논문을 보면 박경희(1998)는 뇌성마비아 60명을 대상으로 자유화의 특징을 통하여 심리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구조색에서 경련형이 많이 사용한 초록색은 자제, 자신감, 조심성 등이 결핍되어 있고, 대소변과 음식 먹기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애정을 호소하고 있었다. 비 경련형에서는 파랑색이 많이 나타나 신경피로, 불안조절, 의존적인 경향을 취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정현숙(1991)은 나무그림 검사를 통하여 뇌성마비아 120명을 대상으로 심리특성을 구명하였는데 뇌성마비아는 환경에 대한 부적응,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퇴행경향 그리고 발달이 지체되고 정신적으로도 지체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신희(1976)는 자유화 분석을 통해서 심신장애아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바 뇌성마비아는 강한 내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충동적이고 고집이 세며 타인을 거부, 경계하는 비협력적인 경향이 강하고 열등감과 구강적 충동이 강하며 의존적이고 성장할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진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는데 뇌성마비라고 하는 1차 증상이 원인이 되어 생리적인 욕구 저지의 상태가 일어나고 이에 대한 신경적인 정서불안이라는 2차 증상이 나타난다. 여기에 부모의 과보호나 친구들의 조롱, 가정이나 사회적 조건이 첨가되어 3차 증상인 열등감을 생기게 하고 이러한 열등감은 공격이 아니면 퇴행이라는 4차 증상인 반응 행동이 나타난다. 이것이 사회를 향해 나타날 때는 반사회적 또는 비사회적인 5차 증상의 행동이 나타난다(정재권·안병준, 2001).

이상에서 볼 때 뇌성마비아는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정서불안정, 비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가정환경에의 부적응, 기타 문제행동인가를 분석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대구 B지체부자유학교 21명, 대전 S지체부자유학교 12명, 전북 J지체부자유학교 19명, 전주 Y특수학교 11명 총 63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중 분석이 불가능한 그림 19부를 제외하고 44부를 분석하였다. 장애정도에서 1, 2, 3급만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장애유형은 경직형이나 진전형도 일부 있었으나 조사대상수의 부족으로 운동의 유형을 중심으로 크게 경련형과 비경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의 구체적인 실태는 <표1>과 같다.

<표1> 연구대상의 실태

학교	성별		장애정도			장애유형		계
	남	여	1급	2급	3급	경련형	비경련형	
B학교	9	2	7	3	1	2	9	11
S학교	5	3	4	3	1	1	7	8
J학교	8	6	7	2	5	6	8	14
Y학교	7	4	6	4	1	3	8	11
계	29	15	24	12	8	12	32	44

2. 분석 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분석 도구는 김동연·공마리아·최외선(2002)의 HTP와 KHTP 심리진단법에 제시된 표현 양식 중 각 정서에 따른 표현 양식을 종합하여 지표를 만들고, 뇌성마비아의 정서적 특징과 그에 따른 그림 표현 양식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뇌성마비아의 자유화에 나타난 정서적 특징을 자신감/안정성, 불안증/우울증, 공격성/충동성, 위축증/의존성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정서적 지표는 <표 2>와 같다.

<표 2>

정서적 지표

지표	구분	표현특징
자신감/안정성	크기	종이 크기의 ⅔ 사용.
	위치 선 세부 묘사	종이 전체를 사용하여 표현하되, 균형 잡힌 그림으로 표현. 그림의 주제를 중심부에 위치 끊어지지 않고 곧바른 선 사용.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구도 잡힌 그림으로 표현.
불안증/우울증	크기	지나치게 작은 그림.
	위치 필압 선 색칠 지우기 세부 묘사	화지 아래쪽이나 가장 자리에 그린 그림. 그림 전체에 매우 강한 선으로 표현. 곡선으로 그린 선. 음영이 있는 선. 스케치풍선이나 여러 방향으 로 바꾸어 그린 선. 계속된 덧칠로 두껍게 색칠. 빈틈없이 색칠. 지나친 사용. 적절하지 못하고 결여된 세부묘사. 기저선 표현(사람 표현 시). 대칭성 강조. 그림자의 표현.
공격성/충동성	크기	지나치게 큰 그림. 종이를 벗어나 세부묘사가 절단된 그림.
	위치 필압 선 색칠 세부 묘사	왼쪽에 치우친 그림. 매우 강하고 몽개지는 듯한 필압(조절되지 않음). 짧게 끊어 그린 선. 지그재그 선. 수직선 사용이 많음. 각진 선 사용 조절되지 않고 덧칠하는 표현(예: 덧칠로 인해 종이에 구멍 이 남). 완성된 작품으로 색칠하지 않고 빈 공간을 남겨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세부묘사. 세부묘사의 결여.
위축증/의존성	크기	지나치게 작은 그림.
	위치 필압 선 지우기 세부 묘사	화지의 왼쪽이나 가장자리에 치우쳐진 그림. 화지의 밑바닥 에 그려진 그림. 희미한 선. 불연속선 스케치선. 그물같은 선 사용. 끊어지지 않고 곡선의 선. 지나친 사용. 운동감 없고 딱딱한 그림. 남의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림. 부 분의 형태가 정확하지 않음. 인물을 숨겨 그리는 경우.

3. 절차

대상아동에게 크레파스와 화지를 나누어 주고 “무엇이든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세요”라는 말을 한 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준 후 자유화를 그리게 했다. 다 그린 후에 그림 뒷면에 이름을 쓰도록 하였으며 시간제한 없이 실시하였다. 장애유형, 장애등급은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별도로 기록하였다.

4. 자료처리

자료처리는 정서적 지표에 따라 집단별, 하위 영역별로 빈도 조사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빈도 조사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 정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동도 있어 연구대상의 숫자와는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여 해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정서적 특징

뇌성마비아 성별에 따른 정서적 반응 결과는 표3과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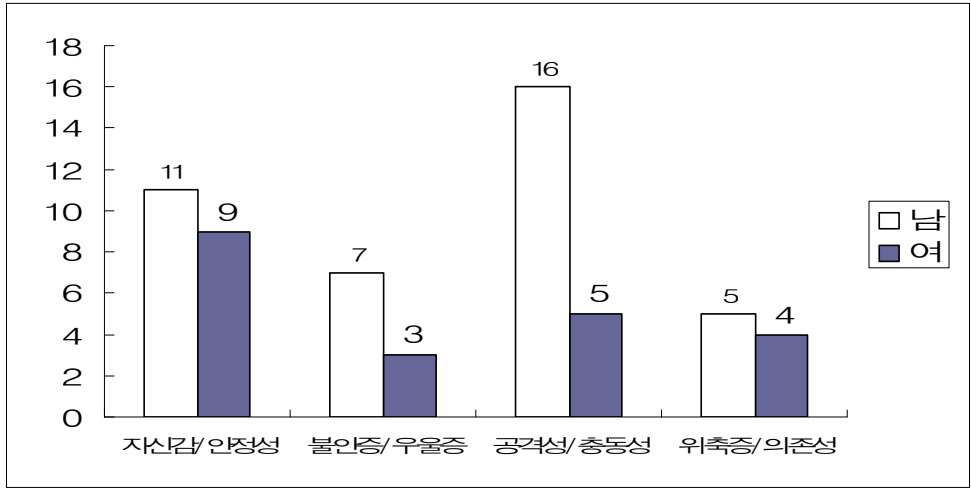
<표 3> 성별에 따른 정서적 결과

구분	자신감/안정성	불안증/우울증	공격성/충동성	위축증/의존성	계
남	11(28.20)	7(17.96)	16(41.02)	5(12.82)	39(100.0)
여	9(42.86)	3(14.28)	5(23.81)	4(19.05)	21(100.0)

()은 %임.

<표3>과 그림1에서 볼 때 남학생은 공격성/충동성, 자신감/안정성, 불안증/우울증 순으로 공격성/충동성이 41.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자신감/안정성, 공격성/충동성, 위축증/의존성 순으로 자신감/안정성이 4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학생은 공격성/충동성의 경향이 나타났고, 여학생은 자신감/안정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성별에 따른 정서적 결과

2. 장애 정도별에 따른 정서적 특징

뇌성마비아 장애정도별에 따른 정서적 반응 결과는 <표4>와 그림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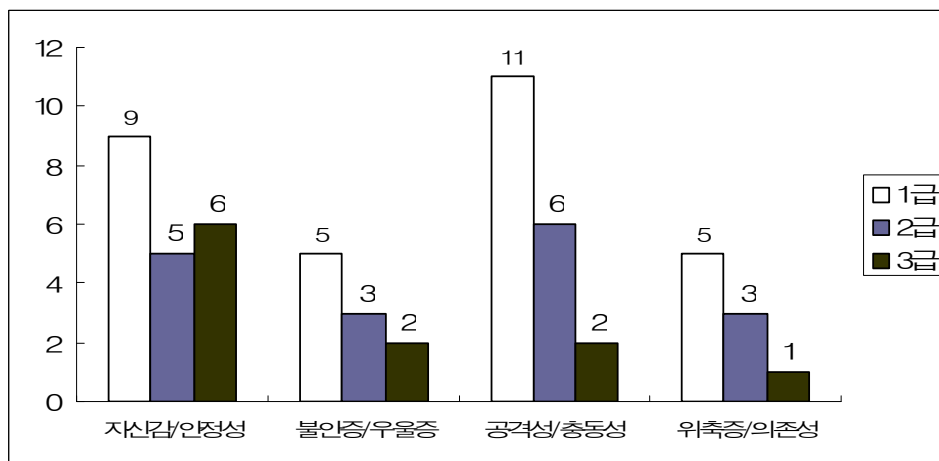
<표 4> 장애정도별에 따른 정서적 결과

구분	자신감/안정성	불안증/우울증	공격성/충동성	위축증/의존성	계
1급	9(30.0)	5(16.67)	11(36.66)	5(16.67)	30(100.0)
2급	5(29.41)	3(17.65)	6(35.29)	3(17.65)	17(100.0)
3급	6(54.55)	2(18.18)	2(18.18)	1(9.09)	11(100.0)

()은 %임.

<표4>와 그림2에서 볼 때 1급은 공격성/충동성, 자신감/안정성 순으로 공격성/충동성이 3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급은 공격성/충동성, 자신감/안정성 순으로 공격성/충동성이 3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급은 자신감/안정성, 불안증/우울증, 공격성/충동성 순으로 자신감/안정성이 5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급은 공격성/충동성, 2급은 공격성/충동성, 3급은 자신감/안정성이 가장 높음으로 장애가 중증일수록 공격성/충동성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2> 장애정도별에 따른 정서적 결과

3. 장애 유형별에 따른 정서적 특징

뇌성마비 유형별에 따른 정서적 반응 결과는 <표5>와 그림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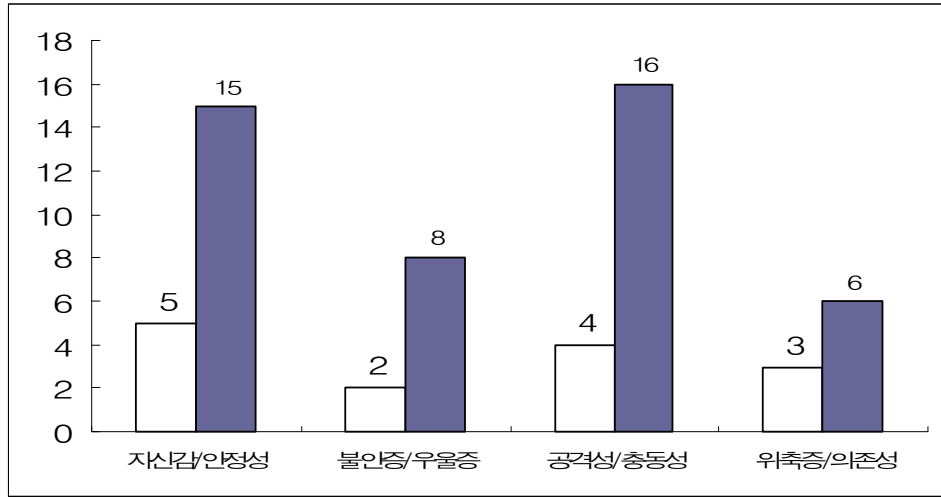
<표 5> 장애유형별에 따른 정서적 결과

구분	자신감/안정성	불안증/우울증	공격성/충동성	위축증/의존성	계
경련형	5(35.71)	2(14.29)	4(28.57)	3(21.43)	14(100.0)
비경련형	15(33.3)	8(17.78)	16(35.56)	6(13.33)	45(100.0)

()은 %임.

<표5>와 그림3에서 볼 때 경련형은 자신감/안정성, 공격성/충동성, 위축증/의존성 순으로 자신감/안정성이 3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경련형은 공격성/충동성, 자신감/안정성, 불안증/우울증 순으로 공격성/충동성이 3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경련형은 자신감/안정성이 되어 있는데 비해 비경련형은 공격성/충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3> 장애유형별에 따른 정서적 결과

V. 결론 및 제언

자유화에 나타난 뇌성마비아의 정서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4개 지체부자유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뇌성마비아 44명의 자유화를 통해 정서적 특징을 자신감(안정적), 불안증 / 우울증, 공격성 / 충동성, 위축 / 의존적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뇌성마비아 성별 정서적 특징에서 남학생은 공격성/충동성의 경향이 나타났고, 여학생은 자신감/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뇌성마비아 장애정도별에서 1급은 공격성/충동성, 2급은 공격성/충동성, 3급은 자신감/안정성이 가장 높음으로 장애가 중증일수록 공격성/충동성이 많다.

셋째, 뇌성마비아 장애유형별에서 경련형은 자신감/안정성이 되어 있는데 비해 비경련형은 공격성/충동성이 많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이후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년차별에 따른 정서적 특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상태를 세분화하고 장애등급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수균 외9인(1996). **뇌성마비 언어치료**. 한국언어치료학회.
- 곽승철 외 6인(1999). **지체부자유아 교육**.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교육부(1995). **특수학교(지체부자유) 공통 교사용 지도서 사회·심리적 훈련**.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1998). **특수학교 교육 과정**. 교육부.
- 교육부(1999).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 길성숙(2002). **뇌성마비아의 치료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연, 공마리아, 최외선. (2002). **HTP와 KHTP 심리진단법**. 대구: 동아문화사.
- 김재은(1995).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 교육과학사.
- 김춘일 역(1981). **미술과 시지각**. 서울: 흥성사.
- 김형아(2001). **아동화에 표현된 색채와 정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형준(1996). **아동미술 실기교실**. 서울: 미진사.
- 박경희(1998). **뇌성마비아의 자유화에 나타난 심리적 특성**.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성자(1985). **어린이 공간 지각과 표현적 특징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안병즙(1978). **지체부자유아 교육**.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이신희(1976). **자유화 분석을 통한 심신장애아의 심리학적 특징의 진단**.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은주(2004). **아동화에 표현된 아동정서의 분석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환(1996). **유아를 위한 미술교육**. 서울: 교문사.
- 정대식(1995). **아동미술의 심리연구**. 서울: 미진사.
- 정재권·안병즙(2001). **지체부자유아 심리 이해**. 서울: 학지사.
- 정현숙(1991). **뇌성마비아의 나무 그림에 나타난 심리 특성**.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조혜영(2003). **아동화를 통한 표현심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기정(2002). **아동미술과 특수아동미술**. 서울: 교육과학사.
- Batshaw, M. & Perret, Y.(1986). *Children with handicaps: A medical primer(2nd ed.)*. Baltimore: Paul H. Brookes.
- Hallahan, D. P. & Kauffman, J. M.(1982). *Exceptional Children 2nd, ed.* N. J.: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Inc.
- Hourcade, J. & Parette, H. P.(1984). Cerebral palsy and emotional disturbance: A review an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50*, 55-60.
- Lowenfeld, B.(1975). *Creative and mental growth*. N. Y.: MacMillan Publishing co.
- Read H.(1945). *Education through art*. London: Faber and Faber.
- Tanner, D. C. (1980). Loss and grief: Implications for the speech language pathologist. *ASHA, 22, 11*, 916-928.

The Cerebral Palsy Children's Emotional Characteristics revealed in Free-Drawing

Chung, Jae-Kweon

Woosuk University

Lee, Hea-Suk

Myung Shin University

Chung, Mi-Young

Daegu University

<Abstract>

To investigate the cerebral palsy children's emotional characteristics revealed in free-drawing, we analyzed those characteristics after dividing them into 4 subclassification : self-confidence / stability, anxiety/ depression, aggression / impulsiveness, withdrawal / dependence through the free-drawing of 44 cerebral palsy children attending the school physically handicapped.

The conclusions from th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spastic children's emotional characteristics, the boys showed aggression / impulsiveness disposition while the girls high self-confidence/ stability.

Second, concerning the degree of impediment, the first class and second class showed aggression / impulsiveness, the third class self-confidence / stability. so we conclude that the more serious their impediment are, the more offensive and impulsive the children are.

Third, Referring to the children's impediment types, we found that the children with convulsive fit had self-confidence / stability while many children without that were aggression / impulsiveness.

As this study was intended for a few student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an't always be applied to every case. On the basis of this study some suggestions could be made as follows for the more study afterward.

Firs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by the educational length.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analyze the impediment situation in detail.

Key words: cerebral palsy, emotional, free-drawing

논문 접수: 2007. 4. 5 심사 시작: 2007. 5. 10 게재 확정: 2007. 6. 25

부록 빠졌음

부록 빠졌음